

지역구도 철옹성 자전거 타고 넘다



이정현, 소선거구제 이후 광주·전남 첫 여당 의원 당선
호남이 지역갈등 해소 '물꼬'... 이젠 정부·여당이 답해야

7·30 재보선 ▶ 관련기사 2·3·4·6면

30일 실시된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는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졌다. 지난 1988년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로 전환된 이후, 26년 만에 광주·전남에서 최초로 새누리당 의원이 탄생한 것이다.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아권의 심장이자 텃밭인 전남에서 지역구도 타파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의 기념비적 사건이라는 평가다.

이정현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 최다 득표수를 차지하는 이번까지도 연출했다. 31일 밤 12시 2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는 6만815표, 49.43%를 득표해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4만961표, 40.32%)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6만표대를 기록하는 득표도 발휘했다.

이정현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서갑원 후보를 크게 앞서 나가며 기적을 예고했으며 막판까지 여유있는 차이를 보이며 승리했다. 이정현 후보의 승리는 7·30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서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아권의 심장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기반인 전남에서 이뤄낸 극적인 승리가기 때문이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지역주의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해왔던 전남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 당선을 통해 견고했던

지역구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정현 후보의 당선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진정성'으로 집약되고 있다.

1995년 광주시의원 선거, 2004년 총선, 2012년 총선 등에서 잇달아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며 3선4기의 도전에 나선 그의 진정성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 '호남 예산 지킴이'로 맹활약 한 그가 선거 과정에서 '미지도록 일을 하고 싶다'고 호소한 것도 표심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지역 민심의 전략적 선택도 이정현 후보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역주의 타파의 물꼬를 트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합의의 메시지를 던지고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순천·곡성 지역구를 넘어서 광주·전남 전체가 지역구였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수많은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순천·곡성 유권자들에게 이정현 후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 민심이 이정현 후보 당선으로 지역주의 극복의 메시지를 던짐에 따라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 구체적인 행보를 통해 응징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 여권에서 답을 내놓아야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타파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파란대소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30일 밤 순천시 새누리당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아내 김민경씨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탈출방송 했다”
해경 주장 거짓

검찰, 과실치사 기소 검토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 소극적 대응으로 공분을 샀던 해경 경비정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 차례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마치 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까지 작성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더 나아가 구조 활동을 미흡하게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5면>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30일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목포해경 123정 장갑(53)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고 허위 내용이 포함된 일지를 다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로 작성된 일지에는 9시 30분께 현장에 도착,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을 수 차례 했고 선체 진입을 지시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방항에서 “승객을 향해 수 차례 바다로 뛰어들라라고 경고 방송을 했다”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목포해경도 이후 ‘자체 확인결과 세월호 승객을 대상으로 퇴선통보 방송을 수회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었다.

결국 대낮에 300명 넘는 승객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데도 제대로 진입조차 못한 해경의 ‘무능함’에 분노하며 언론 보도를 지켜보고 있던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셈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4대 11 참패 ... 새정치號 ‘7·30 침몰’

광주 광산을 권은희
나주·화순 신정훈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경기 수원정 박광은 당선

‘미니 총선’으로 불린 7·30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모두 15곳의 선거구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격전지역에서 패하며

4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날 개표 결과,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 나경원과 경기 수원정 김용남, 수원을 정미경, 김포 홍철호, 평택을 유의동 후보 등이 승리하며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을 싹쓸이했다. 또 순천·곡성(이정현)에서 이변의 승리를 거뒀고 충북 충주(이종배), 대전 대덕(정용기), 충남 서산·태안(김제식) 등 충청권 3곳에서도 모두 이기는 등 압승을 거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 수원정(영통)에서만 박광은 후보가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를 이겼다.

새정치연합은 수원정 외에는 텃밭인 광주 광산을(권은희)과 나주·화순(신정훈), 담양·함평·영광·장성(이개호)을 지키는데 그쳤다.

야당의 잠재적 대선후보인 손학규·김두관 후보는 새누리당 강제지역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처럼 ‘여당 완승, 야당 참패’라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정국은 여권 중심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석 11석을 추가해 의석수 158석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은 울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다. 막 출범한 김무성 대표 체제도 당분간 공고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월호 정국에 막혀 고전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야당의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이 공천 실패와 전략부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새정치연합의 경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가 흔들리면서 당내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선거 참패의 단초를 제기한 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고 대선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보선 투표율(잠정)은 지난 25~26일 실시된 사전투표 및 이날 중순부터 실시된 거소투표 결과를 포함해 32.9%에 머물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 19일(주일)~22일(수)
장소: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교회
광신대학교 062)605-1000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경우량인 표준 연비 및 용량: C 200 1,991cc, 1,500kg, 자동기,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0kg, 자동기,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기,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기,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복합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